



기획특집  
글로벌 IoT 시장을 향해 KT가 뛰어간다

이슈 & 사회  
SNS 중독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현장 24시  
서부지방본부 인천유선운용센터지부 송도운용팀 이호영 조합원  
KTTU NO.1  
본사지방본부 기업IP컨설팅센터지부



# 대한민국 1등을 넘어, 글로벌 1등을 향해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화기로 발명특허를 받은 것은 1876년이었습니다.  
1896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기가 덕수궁에 설치되었습니다.  
출발은 20년 늦었지만 우리는 세계 최초 광대역 LTE를 선보였습니다.

통신 130년의 역사를 이어받은 KT는 혁신적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통신시장에서 완전한 차별화를 이루고, 글로벌 1위로 도약하기 위해  
KT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조직의 역량은 물론 조합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마음가짐과 단결력을 증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입체적이고 유기적인 소통과 체계적인 협업으로  
조직의 자부심은 더욱 드높아질 것입니다.

통신의 새 장을 여는 순간에는 항상 KT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이끈 현장에는 우리 조합원이 있었습니다.  
조합원 개개인의 자신감과 KT의 역량을 결합한다면  
'글로벌 1등 KT'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 C o n t e n t s

vol. 19



KTTU NEWS	04	NEWS
기획특집	08	글로벌 IoT 시장을 향해 KT가 뛰어간다
도전, 60일	12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양재유 조합원
이슈 & 사회	14	SNS 중독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현장 24시	16	서부지방본부 인천유선운용센터지부 송도운용팀 이호영 조합원
KTTU 카툰	20	감성복지와 함께 성장하는 일터 만들기
KTTU NO.1	22	본사지방본부 기업IP컨설팅 센터지부
KTTU 리서치 01	26	수빈이에게 꿈과 희망을 준 글로벌 여학연수의 추억
KTTU 리서치 02	28	극적인 역전승을 이끈 350명 조합원의 합성
컬덕트	30	세계를 열광시킨 신기한 요술상자의 등장
길따라 멋따라	32	2015 임직원 하계 휴양시설 안내
독자후기 및 퀴즈	34	조합원 독자 후기 및 퀴즈



# KT TRADE UNION News

상 유무를 확인하고 One-Voice 메시지 발송, 현장 초동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본부 상황실과 현장상황실에서는 신속한 보고 및 인근 의료기관과의 긴급 연락이 가능하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노사상생협의회 열려...합동실태조사 결과 및 분과별 실적 등 논의



KT노동조합과 회사는 6월 3일(수) 개최한 상생협의회에서 노사합동 공동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분과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먼저 노사는 지난 5월 12일(화)부터 14일(목)까지 2박 3일간 진행된 노사합동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결혼기념일 현물 지급 등 일부 미흡한 비급여성복지후생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관리자 중심 복무기준 준수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비급여성복지후생비 집행에 대한 검증프로세스를 정립하기로 약속했다. 이어 그간의 분과별 추진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연 힐링캠프 시행과 성공자 포상 ▲그룹 임직원 K쇼핑 할인혜택 제공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비품 대개체 추진 ▲동계 작업복 및 방한복 9월 중 지급 등을 시행할 것을 협의했다.

또한, 노사문화선진화분과위원회 실적과 관련하여 ▲토지주택공사 기숙사 인터넷 경쟁입찰 수주 성공 ▲성호리조트 인터넷 수주 ▲기타 마케팅 지원활동 ▲지방은행노동조합과 MOU 체결과 같은 노동조합의 회사가치 창출활동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노사문화선진화분과의 향후 중점 계획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업무용 법인폰 수주 지원으로 이르면 6월 안으로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KT노동조합과 회사는 4월 15일(수) 오전 10시 본사 16층 회의실

에서 노사문화선진화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실적 보고 및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노사는 ▲노동조합의 회사가치 창출 ▲노사공동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추진 ▲노사간 소통강화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 실적을 보고받고 우수 사례 등의 핵심실적을 분석했다.

## 2015년 하계 중등자녀 글로벌 어학연수 추진



KT노동조합은 6월 2일(화) 11시부터 본사 KBN 방송실에서 KT 직원자녀 글로벌 어학연수 대상자 30명을 지역별 박스추첨을 통해 선발했다. 이는 현재 중학생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추첨과정은 KBN Talk을 통해 공개했다.

한편, 어학연수는 캐나다 공립학교 커리큘럼 참여 및 과제 수행, 홈스테이 등이며, 문화체험은 유명대학(스탠포드, UCLA), 주요 도시 및 자연 탐방 등 실질적 학습효과 및 글로벌 체험으로 진행된다.

## 업무용 단말기 3차 교체 추진

- 신청대상
  - 노사합의일(2014.10.01) 기준 재직 임직원 중 현재 재직자
  - 1차, 2차 미 신청자
  - 휴직자, 전문컨설턴트, 청원경찰, 재직전출자 포함
  - 제외자
  - 계약직(일반, 임시, 파견) 및 2014년 10월 2일 이후 신규 입사자
  - 2014년 임직원 업무용 단말기 교체 완료자(1, 2차)

## 2015년 단체교섭 진행상황 공지

- 2015년 단체교섭 요구 및 조합원 공지(4월 21일)
- KT새노조에 의견제시 요청(4.30), 회신(5월 19일)
- 회사, 단체교섭 개최 및 사측 교섭위원 통보 (5월 15일)

상기와 같이 2015년 단체교섭은 4월 21일에 개시되어 진행 중이며, 노동관계법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 의무를 준수함은 물론, 단체교섭 전담반 운영 등을 통해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어 최적의 요구(안)을 확정, 회사에 통보하고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KT노동조합은 최적의 교섭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앞으로도 교섭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알려드릴 것을 약속하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 노사 교섭위원

#### 노동조합 측

- 대표위원 : 정운모 위원장
- 위원 : 황성관 사무총장, 한호섭 사업지원실장, 차완구 정책실장, 최장복 조직실장, 전형집 복지국장, 박병규 산업안전국장, 박상인 정책1국장, 박충범 정책2국장, 박경윤 교육국장
- 간사 : 유대중 지원국장

#### 회사 측

- 대표위원 : 황창규 회장
- 위원 : 이대산 경영지원부부장, 신광석 재무실장, 김진철 C기획부부장, 이철규 네트윙본부장, 박중욱 전략기획실장, 이공환 인재경영실장, 신현욱 경영지원실장, 이성규 노사협력1담당, 김무성 경영지원담당
- 간사 : 윤성욱 상생협력팀장

## 그룹 PS 주식 의무 보유기간 만료 안내

지난 2013년 5월 지급된 그룹PS(자사주 10주)에 대한 의무 보유기간(2년) 만료됨에 따라, 인출 방법을 공지한다.

### ■ 그룹 PS 주식 인출 방법

- 인출 가능일 : 2015년 5월 26일(화) 이후
- 인출 방법 : 삼성증권 지점 방문(신분증 필참)
- 계좌번호 확인 : kate → ERP → HR →

개인업무 → 급여에서 계좌번호 확인

- 최초 지급 시 삼성증권 내 직원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지급
- 문의 : 경영지원실 복지팀 (031-727-2491)

## 2015년 5월 성과급 지급안내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G직, A직 및 C직 및 Sales직 직원(청원경찰 포함)
- 지급기준 : 지급산식 : 월 기준급 x 지급률
- 지급률
  - G직 : 100%
  - A직 : 80%
  - C직 및 Sales직은 월평균 지급률(62.5%)에 전월실적 반영
- 지급일 : 2015년 5월 22일(금)
-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고

## KT노동조합, ICTJ와 노동·통신 포럼 개최



KT노동조합과 ICTJ(일본 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 대표단은 5월 15일(금) 오전 10시부터 KT 본사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비정규직 이슈 토론 등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ICTJ 대표단이 양국 노동·통신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와 교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하시모토 마나부 정책실장 등 10명의 ICTJ 간부들은 15일 노동조합을 방문해 중앙상무집행위원들과 악수한 뒤 곧바로 포럼에 들어갔다. 포럼은 ▲근로 형태별 노동자 구성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및 비중 ▲경쟁 통신회사의 비정규직 이슈 ▲KT노동조합의 비정규직 대책 ▲2015 한국 노동계 주요이슈의 순서로 진행됐다.

KT노동조합은 'KT 및 KT 그룹 계열사의 고용은 정규직이 원칙'이라고 설명한 뒤 사회적으로 심

각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불법파견 근절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ICTJ노동조합 역시 한국 노동계 이슈에 공감을 표한 뒤 비정규직 고착화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양국 통신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 전사 금연캠페인 관련 포상계획 공지

KT노동조합과 회사는 5월 11일(월) 존경받는1등 KT분과위원회의에서 금연 참여자 포상을 통한 지속적 동기부여 및 건강한 일터 만들기를 위한 전사적 금연 캠페인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 세부 포상계획

- 가. 개인포상
  - ① 해외연수 : 개인/5명
    - 포상내용 : 100만원 상당 여행상품권 증정
    - 선정시기 : 연말 1회 / 11월
    - 선정방식 : 금연확인증 추첨
  - ② 수련관 이용권 : 개인/10명
    - 포상내용 : 평일 2박3일 이용권 증정 (생활입소)
    - 선정시기 : 연말 1회 / 11월
    - 선정방식 : 금연확인증 추첨
  - ③ 가족친화형 선상품 : 개인/30명
    - 포상내용 : 10만원 상당
    - 선정시기 : 연말 1회 / 11월
    - 선정방식 : 금연확인증 추첨
  - ④ 기프티 쇼 : 개인/40명
    - 포상내용 : 1만원권
    - 선정시기 : 연말 1회 / 11월
    - 선정방식 : 금연확인증 추첨
- 나. 단체포상
  - 해외연수 : 단체/2팀(10명)
  - 포상내용 : 100만원 상당 여행상품권 증정
  - 선정시기 : 연말 1회 / 11월
  - 선정방식 : 금연독수리5형제 신청 후 추첨을 통해 선발
- 다. 기관포상
  - 수기공모 : 기관/2개

- 포상내용 : 포상금 200만원
- 선정시기 : 연 2회(7월, 11월)
- 선정방식 : Kate Cafe '기업문화열린소통' 수기공모

## KT노동조합, 지방은행노조 협의회와 MOU 체결



KT노동조합(위원장 정윤모)은 5월 12일 6개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와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고 상호연대를 통해 현장영업 지원 및 지역 사회 공헌 확산을 위한 상생방안도 노동조합이 직접 나서서 실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KT본사에서 한 자리에 모인 KT노동조합과 6개 지방은행 노동조합위원장들은 MOU 체결을 통해 조합이 앞장서 직원복지 및 사업분야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현재의 UCC 활동을 지역 사업장 단위로 확산하기 위하여 공동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KT노동조합이 지역은행 노동조합과 상호 상품가입 등을 직접 추진함으로써 회사와 조합원의 실익을 위해 노동조합이 직접 나섰다는 점과 노동조합간 협의를 통해 UCC를 통한 사회공헌활동 확산을 결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깊게 해석된다.

KT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은 "이번 MOU를 통해 건전한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한편, 보다 세분화되고 지역밀착적인 지역단위 UCC 활동을 통해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보다 활발히 선도하는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하며 "노조가 직접 나서서 상품판매 등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KT 현장조합원의 어려운 영업 활동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T노동조합은 최근 LH공사 등 다수기업 노조

와 MOU를 체결하고 직접 특판활동을 전개하는 등 회사와 조합원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MOU를 통해 현장조합원의 영업활동에 동참하고 직접 회사의 실익을 챙기는 한편,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 선도하는 강한 의지를 사실상 더욱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

## 법인명의 업무용폰 본인확인 서비스 안내

KT가 최초로 법인폰 실사용자 대상으로 법인명의 본인확인 서비스를 출시했다.

- KT플라자(일반 판매/대리점 제외) 방문 서비스 신청
- 임직원인 경우 플라자 방문시 신분증과 사원증 제시
- 개인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와 동일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짐 (이용약관 동일 운영-무료)
- 휴대폰 명의(법인)의 동의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도용방지를 위해 별도 PW 입력을 통해 인증 (신청 휴대전화로 PW입력 URL 전송).

## 2015년 동계 통합 유니폼 품평회 실시 및 온라인 설문시행



KT노동조합과 회사는 2015년 동계 통합유니폼 1차 품평회를 실시하고, 통합유니폼과 방한복 10종을 선정, 이에 따라 5월 11일(월)부터 5월 14일(목)까지 현장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고자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 5.1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100만 노동자 함성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

KT노동조합은 지난 5월 1일(금) 오후 2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한국노총이 개최한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강행한다면 전국적 총파업으로 맞설 것을 분명히 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현 정부는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위해 반 노동정책으로 일관하는 위험한 여주행을 하고 있다"며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 문제에 대해 정부는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 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5.1 노동자 대회를 맞아 공동결의를 통해 '각종 지침과 매뉴얼, 가이드라인, 개악입법 추진 등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면 그로 인한 혼란과 파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 최저임금 현실화 및 청년실업 해소, 공적연금 강화, 사회공공성 강화 등 한국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투쟁할 것 ▲ 업종과 세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대 노총의 틀을 넘는 역사적 노동자대회로 진군할 것 등을 결의했다. 한편 본대회의 마무리 집회에서 KT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단결하자"며 통신노동자들을 격려했다.

## 화성송신소 오토캠핑장 개장 안내

KT노동조합은 임직원과 가족의 여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제부도 인근에 위치한 화성송신소 내 오토캠핑장을 개장했다.

- 캠핑장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101-4 KT화성송신소
  - 신청 : jaegoo.kang@kt.com 이메일 선착순 접수 (접수시 입소자, 연락처, 소속, 입소인원, 일정 등 표시)
  - 텐트대여 : 1박당 1만원(4~5인용) (1만원 : 음식물, 일반쓰레기 봉투 및 분리수거 비용)
  - 유의사항 : KT직원에 한해 이용가능, KT직원을 동반하지 않은 외부인은 이용불가 (신분증 지참)
  - 전화문의 : 강북지방본부 강재구 정책국장 010-3452-0404
- ※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조

## KT노동조합 선배열사 합동 추모제 "선배 열사들의 헌신적인 삶과 정신 계승하자"



KT노동조합은 4월 28일(화) 11시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합동 추모제를 열었다. 이날 추모제에는 황성관 사무총장을 비롯해 지방본부위원장들과 조합간부, 그리고故 김낙성,故 김양찬,故 오용철,故 김양중,故 윤준상 동지의 유가족이 참석해 열사들의 뜻을 기렸다. 황성관 사무총장은 추모사를 통해 "우리에게 8,90년대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으며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 철폐와 통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수배와 징계, 해고 등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다"며 "바로 그러한 투쟁의 역사에故 김낙성,故 김양찬,故 오용철,故 김양중,故 윤준상 선배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유가족 대표로 답사를 한故 김낙성 동지의 동생인 김낙은 씨는 "잊지 않고 매년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는 KT노동조합에 큰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한 뒤 "그분들의 뜻과 노력이 헛되지 않

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 2015년 UCC 정기 총회 열려, 전년도 사업결산 및 올해 사업계획 등 논의



기업 간 노사협의체 UCC는 4월 24일(금) KT본사 5층 대회의실에서 2015년도 UCC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이자스민 국회의원, 김형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고용노동부 임영미 성남지청장 등 각계 내 외부인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2014년도 사업결산 및 2015년도 사업추진 계획과 UN SDGs 국회포럼 자문기관 참여의 건이 논의됐으며, 신규 회원사 위촉장 수여 등을 통해 회원사 결속을 강화했다.

정윤모 공동의장은 "KT노동조합이 추구하는 운동방향은 조합원과 사회적 책임, 나아가 글로벌 선진노사문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 뒤 "UCC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여 나눔의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약속했다.

- ※ 회원사 : 국립공원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KT, SH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농수산식품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시각 장애인과 함께하는 북한산 둘레길 탐방 봉사활동

KT노사는 4월 17일(금) 시각장애 아동들과 함께 북한산 둘레길 산행을 함께하며 나눔활동을 펼쳤다. 노동조합 중앙간부를 비롯해 장애인고용공단 등 UCC 자원봉사자 27명이 20명의 아동들과 북한산 둘레길 자연관찰로를 탐방한 이번 행사는 노사공동 사회공헌 참여 및 KT노사



랑 나눔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됐다. 조합 간부들과 아이들은 도보로 휴길을 걷고 직접 만든 새집을 북한산 탐방로 나무에 달아주는 등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였다. 김인관 조직1국장은 "노동조합과 UCC는 시각장애 아동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나눔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고 약속했다. KT는 2013년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장애인 대상 정보격차 해소활동 및 문화나눔을 위한 장애인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 GiGA 인터넷 품질측정기 현장공급

KT노동조합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GiGA 인터넷 품질측정기를 공급 했다.

- 구매수량 : 1,500대
- CS직군 : 1,100대
- Biz지원팀 : 300대
- 예비 : 100대
- ※ Biz지원팀은 기업인터넷전화 업무수행자에게 지급(One-Stop 개통/AS 목적)
- 공급일정 : 4월 15일(수) ~ 4월 24일(금)
- 1차(4월 15일) : 100대
- 2차(~4월 24일) : 1,400대
- 구매방법 : 지역 고객센터에서 일괄 IP (커머스Site) 구매
- 배정예산 : 공기구비품수선비 (4월 9일, 소요예산 배정완료)
- 지역본부에서 일괄구매 후, 지사/지점별로 배송 시행

## 글로벌 IoT 시장을 향해 KT가 뛰어간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지구촌 모든 사물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다. IoT(Internet of Things)라 불리는 사물인터넷은 건강관리, 방법치안, 사무자동화 등 개인 사용자 중심의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구축 중이며 미래에는 자동화생산, 의료, 교통, 행정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IoT 시스템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전 세계가 사물인터넷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요즘, KT는 국내 시장에서 선보이고 있는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아시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 시장 규모 47조원, 제2의 인터넷 혁명

사물인터넷은 간단히 말해 모든 가전제품이나 서비스가 하나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뜻한다. 퇴근 후 집으로 들어오면 내게 맞는 온도와 습도로 집안이 쾌적하게 맞춰져 있고, 냉장고는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음식의 상태와 유효기간을 실시간 알려준다. 화재 조짐을 포착하면 알아서 가스를 끄고, 물을 뿌리고, 119에 상황과 위치를 알린다. 내 건강은 24시간 관리되며 불안정한 건강 상황에서는 병원과 자동으로 교류하고, 차 안에 있을 때는 알아서 병원 응급실로 향한다. 자동차끼리는 절대 부딪히지 않고, 운전은 차가 알아서 하며, 나는 차 안에서 쉬거나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영화 속에서 보았던 이러한 사물인터넷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전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의 규모는 지난 2011년 당시 26조 원에 달했으며 올 한해에는 4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력 경제전문지 <Forbes>에 의하면 최근 형성되는 IoT 시장만 해도 2020년 즈음에는 1000조원 규모를 예상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투자자들 사이에선 지난 2000년대 초반 급격히 팽창한 IT시장의 거대한 충격이 올해 IoT 시장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사물인터넷의 발전가능성은 무궁무진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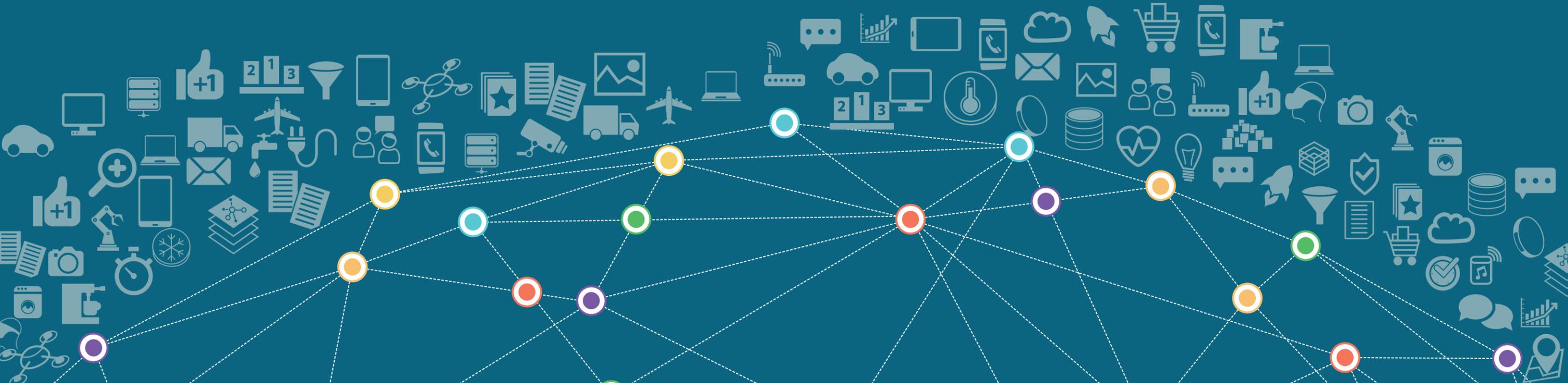
### 앞서가는 미국, 추격하는 유럽 그리고 한국은

전 세계 IoT의 패권은 현재 미국이 쥐고 있다. 미국은 민간 투자에 의한 IoT 관련 기기 및 기술 개발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유럽은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추진됐던 'FP7' 프로젝트로부터 2009년부터 독립 연구 클러스터를 만들었으며 2011년을 전후해 EU 주도하에 '사물인터넷 전략적 연구개발' 아젠다를 설정하고 기술, 사회, 환경적 프레임워크를 완성한 바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영국, 핀란드 등 개별 국가들도 이와 병행해 사물인터넷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각자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해왔다.

우리나라 역시 IoT 단지를 조성하는 등 IT강국으로서의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회사들만 서비스를 만들어내던 이전 인터넷사업과 성격이 매우 다른 만큼 IoT에 대한 치밀한 준비 없이는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표준에 대한 기준이나 제도적 준비가 다소 미흡한 국내 상황을 만회하고 IoT 기반을 든든히 다지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외국에 비해 다소 빈약한 IoT 기반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물인터넷 산업은 KT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서서히 성장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초고속 기가인터넷 시스템을 바탕으로 IoT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 Internet of Things



### 안락한 집을 만드는 스마트 홈 서비스

KT는 최근 코웨이와 손잡고 ‘스마트 홈 케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에어 케어’ 서비스는 집안에 설치된 공기질 측정 센서가 24시간 내내 수집한 데이터를 IoT 플랫폼으로 전송하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구별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간대를 자동으로 찾아준다.

KT는 코웨이와 협업 중인 스마트 에어 케어는 연내 상용화를 목표로 현재 1천여 가정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 향후 정수기, 비데 등의 생활가전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스마트 홈 케어 서비스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중 홈 CCTV 등 집에서 사용하는 생활가전들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내놓을 예정이다.

### 편리한 일터를 조성하는 스마트 오피스 서비스

KT의 스마트 토너 서비스는 프린터 토너의 남은 잉크량을 자동으로 감지해 충전한다. KT가 제공하는 스마트 카트리지는 잔량 없이 잉크를 모두 소진함으로써 탁월한 비용절감과 인쇄품질 효과를 거둘 수 있다. KT의 IMS 플랫폼을 활용해 토너의 잔량과 사용량, 고장 등 원격 서비스를 제공해 사용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스마트파크 시스템은 주차요원로부터 주차권을 발급 받느라 차를 멈출 필요 없이 차량번호판의 자동 인식으로 요금이 정산되는 방식이다. KT는 차량에 장착된 IoT 기반의 차량정보 수집장치를 통해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보하고 운전자의 운행패턴을 분석해 자동차 보험회사에 가입자의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

### 내 아이를 위한 안심 돌보미, Safe & Care 서비스

IoT를 이용한 KT의 서비스는 안전 분야에서 빛을 발한다. 어린이와 노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세이프 존 서비스는 다중이용시설인 대형 건물, 여객선 등에 비콘(Beacon)을 설치해 미아방지 서비스, 건물 구조 및 시설 안내, 탈출경로 안내, 이벤트 등 각종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미아방지는 백화점, 마트, 어린이집, 학교 등 건물 내에서 목걸이형 비콘 단말기를 어린이가 착용하고 돌아다니면 보호자가 아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이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아신고를 하면 안전요원 및 매장 직원들에게 아이의 정보가 공유되어 즉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건물 내 매장, 공원, 복합단지, 버스정류장 등에도 비콘을 설치해 이용자가 근처에 접근할 경우 할인행사, 이벤트, 버스정보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튼튼한 어린이집 보안 지킴이, 키즈뷰

KT는 ICT와 IoT 기술을 활용한 어린이집 안전 서비스를 출시해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얼마 전 선보인 어린이집 전용 CCTV 서비스 ‘키즈뷰’는 어린이집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부모가 언제 어디서나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고화질 영상으로 아이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숙명여대 사물인터넷 기반 \_스마트 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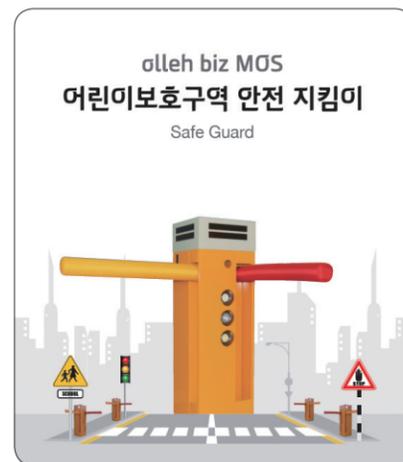
화성시 원격 \_교통신호제어 통신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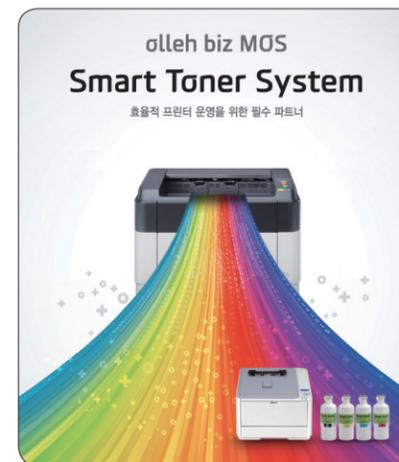
디지털 무선마을방송 \_고을소리



어린이전용 웨어러블 스마트워치 \_올레 똑똑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지킴이 \_Safe Guard



효율적 프린터 운영 필수 파트너 \_Smart Toner System

이 외에도 KT는 KT텔레캅과 제휴를 통해 자녀들의 등하교길 위치 파악이 가능한 ‘안심 알림 서비스’, 올레TV 어린이집 전용 채널을 통해 교육 관련 공지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CUG(Community User Group)’ 서비스, 어린이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유도하는 ‘세이프가드’ 등 다양한 어린이집 안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 인터넷으로 운동하는 올레 기가 홈 피트니스

건강이 최고의 관심사로 부각되는 요즘 ‘올레 기가 홈피트니스’의 인기가 급상승을 맞고 있다. IoT 기반의 피트니스 솔루션인 ‘올레 기가 홈피트니스’는 초소형 웨어러블 센서-스마트폰-IPTV의 연동을 통해 실시간 운동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올레 기가 홈 피트니스는 7g에 불과한 손톱 크기의 초경량 센서를 옷이나 신발, 운동 기구에 부착하고 운동하면서 올레TV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운동 속도 및 칼로리 소모 등 개인 운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홈 IoT 헬스케어 서비스다. 올레 기가 홈피트니스는 보다 정확한 실내 운동량 측정이 가능하며 각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내 자전거, 러닝머신, 스텝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또 올레TV와 연동해 실내에서 TV로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TV 화면 하단에 표시되는 운동시간·거리·속도 및 소모 칼로리와 같은 운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운동의 재미가 배가되는 장점이 있다. 특히 헬스장을 찾을 수 없는 바쁜 직장인이나 미세먼지, 황사와 같은 곳은 날씨를 피해 집에서 편하게 운동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KT, 우수한 기술로 아시아 시장 선도한다

KT는 국내 IoT 수요와 확대되는 시점에서 아시아 주요 통신사들과 IoT 사업 협력을 통해 글로벌 IoT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에 분주하다. 지난해 4월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 모바일 사업자 협의체인 ‘커넥서스(CONEXUS)’ 정기 총회에서 9개 회원사들과 함께 공동 기술 연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기술축적과 교류에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NTT 도코모, 필리핀 스마트(Smart), 싱가포르 스타허브(Starhub), 홍콩 허치슨(Hutchison) 등 9개 회원사가 모두 참여한 커넥서스 정기총회에서는 각 회원사 전문가로 구성된 ‘IoT 프로젝트 그룹’을 발족시킴으로써 IoT 기술, 상품과 서비스, 사업 모델 등을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회원사의 기술력과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가 간 경계를 뛰어넘어 아시아 지역에 IoT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로써 KT는 아시아 주요 통신사들과 IoT 협력을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IoT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 개발해 아시아 지역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KT는 이제 국내 이동통신사들과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한 단계 높은 IoT 기술을 선보임으로써 아시아를 뛰어넘어 글로벌 IoT 시장을 선도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 두 번째 인생을 위한 군살 빼기

## 10킬로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양재유 조합원

우리나라 과체중(비만) 인구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체중을 줄이고 건강과 미모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언제나 화제다. 이제 다이어트는 단순히 보이는 것이 아닌 건강한 내일을 위한 첫 번째 준비라는 인식도 더해지는 듯하다.

오늘은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시작했지만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활력과 동료들과의 즐거운 생활도 되찾은 주인공을 만나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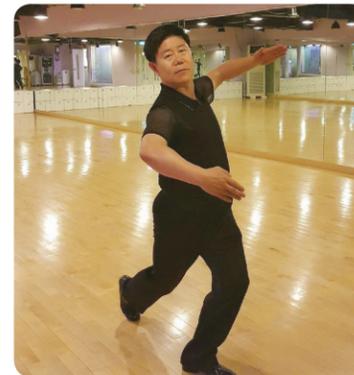
- **도전자** : 양재유 조합원 (강남고객본부지부 남부Biz1담당 분당 Biz영업부 Biz영업 3팀)
- **도전과제** : 다이어트
- **도전일시** : 4월 20일 ~ 현재 진행 중

분당Biz영업부 Biz영업 3팀에서 근무하는 양재유 조합원(56). 키는 작지만 30년 테니스 경력에 다부진 몸매로 주변에서 건강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현재 근무처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 걱정이 늘었다. 잦은 야근과 길어진 출퇴근 시간으로 운동할 시간이 줄면서 살이 찌기 시작한 것이다. 초반에는 크게 느끼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몸이 났다'라고 느낄 정도로 살이 찼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5~6킬로가 불어나더니 어느새 10킬로가 늘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 주요업무다 보니 잦은 야근은 기본이요, 근무지가 집에서 멀어지면서 출근 시간만 1시간 30분, 자연스럽게 운동은 멀어져 갔다. 아침저녁으로 하던 운동 시간은 차에 있는 시간으로 바뀌었다. 변명이겠지만 어쨌든 살은 계속 찌기 시작했다.

### 건강한 나를 찾기 위해 10킬로는 뺀다

다이어트에 도전장을 내민 양 조합원은 이렇게 운동도 못하고 살만 찌면 앞으로 남은 시간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물론 그 이후는 더 걱정으로 다가왔다. 어떻게 하면 예전의 건강한 나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뿐인가. 양재유 조합원은 지난해 지금의 근무지로 오면서 주변 동료들에게 함께 운동하자고 독려했었다. 30년 동안 테니스와 함께해온 건강한 그였기에 동료들의 반응도 좋았다. 고

KT trade union  
12  
13



현재, 댄스스포츠지도사 2급 국가 시험 필기 합격 후 실기와 구술 준비 중이다.

객사와 정기적으로 친선 테니스도 했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초반의 분위기는 금세 시들어져 갔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166cm 키에 몸무게 77킬로, 고민만 하다가 상황이 심각해 진 것이다. 그리고 결심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운동을 하자. 이걸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하는 직장 동료들과 하나뿐인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라도 빼야 한다. 목표는 10킬로. 예전 건강한 나를 찾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식사량이 많은 대신 술자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고 음주량도 많지 않다는 것. 유혹이 없으니 식사량 조절과 꾸준한 운동으로 도전 기간 동안 10킬로 다이어트, 도전 기간을 기준으로 한달에 5킬로 감량을 목표로 삼았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가족과 주변 동료들에게 알렸다. 우선 승용차가 아닌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다. 집에서 역까지, 다시 역에서 사무실까지 매일 조금씩 걸을 수 있어서다. 그리고 저녁에 하기로 했던 수영은 아침으로 옮겼다. 야근과 외근이 잦으니 저녁 시간에 하기로 한 수영을 빠지는 날이 많았다. 물론 점심 식사 후 20~30분씩 걷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20~30분씩 걷고, 아침 수영, 주말에 댄스스포츠와 등산을 하기로 했다.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아내도 매일 집 근처 관악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학업으로 정신없던 아들도 운동을 다시 시작했다. 늘 시간 날 때마다 자신과 테니스를 했고 테니

스가 좋아 서울대 테니스 동아리 회장까지 하던 아들. 부전자 전인지 자신이 운동을 안하자 아들도 운동 시간이 줄었던 것이다.

동료들의 응원도 이어졌다. 운동에 동참하는 직원들도 늘고 있다. 퇴근 후 사무실 인근 탄천에 테니스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고 함께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달 목표 무게까지는 아니지만 4킬로가 줄었다. 초반 더딘 속도에 탄력이 붙어가고 있다. 그뿐인가, 조금씩 예전 체력을 찾아가는 것을 느끼고 있다. 새로운 목표도 생겼다. 취미로 시작한 댄스스포츠가 올해 처음 생활체육으로 인정받아 국가 자격증제도가 생겼다. 7년 동안은 취미 생활이었지만 2급 자격증 취득으로 전문가에 길을 걸어보기로 했다. 물론 어렵다는 이론 시험은 통과했다. 매주 주말 4시간씩 용인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실기를 준비하고 있다. 실기 때, 날렵한 몸매를 보여주자는 생각에 오늘도 땀을 흘리고 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 나이 들었구나 하는 순간이 오면, 바로 새로운 활력을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말은 업무에 마지막까지 충실하고, 언제나 활력 넘치는 오늘을 위해 다이어트를 시작한 양재유 조합원. 오늘 그의 도전은 단순히 몸무게를 줄이는 다이어트가 아닌 인생의 한 시점을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과도 같다는 생각이다.

###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동료 조합원들에게

평소 운동을 해오던 사람도 운동을 게을리 하면 살찌기 마련입니다. 과중한 업무로 운동할 시간을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가 단순히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변화가 아닌 스스로에게는 활력을 주고 주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시작한다면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닌 즐거운 일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움직여 보시지요. 한달에 5킬로 어렵지 않아요.

### 도전 60일! 신청방법

- 소속 및 도전과제를 기재 후 이메일 또는 전화로 신청
- KT노동조합 정책실 편집국장 김민수 (mabin@kt.com, 031-727-2836)
- ※ 참신한 모든 도전과제 신청 가능
- ※ 성공 시 10만원 상당 상품권 제공

# ISSUE & SOCIETY

## SNS 중독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당신은 과연 SNS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약물만이 아닌 정신적 중독의 폐해는 과거에도 많았다. 중독은 도박에서부터 성욕, 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적당히 즐기는 선을 지키지 못해 정신적, 신체적 폐해까지 가져온다. 현대인의 편리와 소통을 위해 탄생한 SNS도 결국 과하게 사용하면서 문제를 드러낸다. 지하철에서만 봐도 대부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섬뜩한 느낌마저 든다. 현실에서의 대화나 소통은 어느 순간 단절된 것 같을지 괜한 우려가 앞선다.

SNS 사용도 중독될 수 있을까. 우선 몇 가지 체크부터 해보자.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의 SNS부터 눈에 들어오진 않는가. 운전 중 잠시 멈출 때나 걸을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SNS를 하진 않는가. 근무 중에도 SNS 금단 증상이 생길 정도는 아닌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SNS에 빠져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진 않는가. 자기 전에도 SNS를 보고 올리느라 잠을 설치진 않는가. 가만히 보면 스마트폰을 통해 SNS를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다. 사실 몇 가지 증세만으로 SNS 중독이 심각하다고 단언할 순 없다. 현대의 다양한 스트레스나 중독 요소는 많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중 한 부분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당신은 과연 SNS 중독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 급속한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SNS 과다 사용

SNS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대표적인 몇몇 서비스뿐 아니라 메일, 게시판, 메신저 서비스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주로 활동은 트위터 팔로잉이나 페이스북 친구맺기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용자들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사진이나 영상, 음악, 매체 등의 미디어를 공유하는 것이 보통이다. 얼핏 보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지만 결국 과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SNS 사용이 급속히 늘어난 건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전세계 1위다. 보급률이 67.6%로 세계 평균 14.8%보다 4.6배나 높다. 2017년에는 88.9%로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보유할 것으로 점쳐진다.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에 접속하게 되면서 SNS 사용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일찌감치 SNS 열풍이 불기도 했다. 바로 싸이월드. 당시 '사이 페인'이라는 말이 떠돌기도 했지만 중독으로까지 여겨지진 않았다. 결국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SNS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아직 SNS 중독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없다. 인터넷 중독 등을 통해 추측할 뿐이다. 인터넷 중독증의 연간 발생률이 약 2.5%, 125만명 정도여서 SNS 중독도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SNS 중독에 대한 폐해가 지적되지만 이 문제만으로 병원을 찾는 이들은 많지 않다.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SNS 때문에 공부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문제시 하는 정도다.

### 대인관계 민감한 외향적 성향이라면 SNS 중독 주의

SNS에 빠지는 원인으로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인터넷 중독의 경우를 보면 주로 우울증이 있거나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지만 SNS는 일종의 소통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인터넷 중독과 차이가 있다. 외로움과 크게 연관되진 않는다. 대체로 연령대가 젊고 외향적인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대인관계에 예민한 사람들이 직접 사람을 대하기 어려워 SNS를 사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자존감이 떨어졌거나 불안감으로 인해 주변에 확인을 받으려는 이들이 빠지기도 한다.

SNS 중독 증세를 알아보려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의

진단 기준을 들어 어느 정도 짐작해볼 수는 있다.

△ SNS 사용시간을 줄여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 △ SNS가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다 △ SNS를 1시간 이상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다 △ 아무런 이유 없이 SNS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가 있다 △ SNS를 하느라 해야 할 일을 제시간에 못할 때가 종종 있다 △ 수업 중이나 중요한 회의 때에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SNS를 확인한다 △ SNS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자거나 지각을 한다. 이 중 3가지 이상이면 SNS 중독을 의심해볼 만하다.

스스로 SNS 중독이라고 의심된다면 상담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SNS에 빠지는 이들은 무엇보다 대인관계에 민감하다. 자신이 예민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리검사를 통해 스스로 정확하게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도한 불안이나 우울감, 완벽주의 등의 성향 때문에 SNS에 집착한다면 약물을 사용해 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생활습관의 변화도 필요하다. SNS의 사용시간을 정해 업무 시간에는 차단시키고 출퇴근이나 저녁시간에 사용하는 것이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 SNS를 비롯한 모든 디지털 기기에서 떨어져 지낼 필요도 있다. '아날로그 데이'라는 날을 정해 실천하는 이들을 주목해보자. 또 사람을 자주 만나 대화하거나 책을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겠다. 스마트폰을 항상 옆에 두고 살면서 대화의 즐거움과 책을 통한 상상력을 잊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일이다.

세계 1위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지극히 개인화된, 나의 이야기만 전달하고 단편적인 메시지만 주고받는 건 아무래도 진정한 소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소통은 정보만 나누는 것이 아닌 상대와의 정서나 감정까지 나누는데 있지 않을까.



# “백령도! 든든합니다!” 첨단 IT기술 집적된 스마트 섬 ‘백령 기가 아일랜드’를 가다

서부지방본부 인천유선운용센터지부 송도운용팀 이호영 조합원



백령도가 달라졌다. 지난 3월 17일 ‘백령 기가 아일랜드’ 구축을 선포한 후 섬 주민들은 안보와 재해, 의료와 교육 등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해진 디지털 일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처럼 백령도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갖춘 섬으로 탈바꿈했다는 사실에 남다른 감회를 가진 또 한사람, 바로 이호영 조합원이다. 순수한 열정과 넉넉한 인심까지 꿰찬 백령도의 파수꾼. 이호영 조합원을 스마트 섬 백령 기가 아일랜드에서 만났다.

### 섬을 닮은 일꾼

인천 연안부두에서 뱃길로 4시간, 백령도로 가는 길은 멀었다. 일렁이는 파도 따라 뱃머리가 흔들리고 긴 여정에 잠을 청하는 사이, 소청도, 대청도를 지나 어느덧 백령도다. 용기포구선착장의 세찬 바람에 적응하기도 잠시, 차량으로 마중 나온 이호영 조합원이 순한 웃음을 띠며 KT백령국사로 안내한다.

이호영 조합원은 백령도 토박이다. 1990년 서울 을지전화국 시절 몸담았던 1년여를 제외하면 고향인 백령도를 떠난 적이 없다는 그가 본격적으로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 1991년 9월부터다.

전용 전송을 담당하는 이조합원을 포함, 현재 KT백령국사에 근무하는 이들은 4명. 무선 모바일을 담당하는 심현진 조합원과 전용회선 A/S담당인 광명수 조합원, 그리고 영업을 담당하는 주순선 조합원이 한 가족처럼 섬 살림을 꾸려간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에 속한 백령도에 주둔한 군인만 해도 대략 6,500명, 주민은 5,400명에 인터넷 가입 가구는 약 2,900여 세대다.

“백령도에 주민이 많았을 때는 2만 명까지 있었어요. 1983년 때만 해도 초등학교가 1,200명 정도였지만 지금은 150명밖에 안돼요. KT백령국사도 한때는 43명이나 근무했었어요. 일도 세분화되고 정이 넘쳐 일할 맛나던 시절이었죠.”

인원이 적다보니 바쁠 때는 서로 돕는게 일상이다. 인근 대청도와 소청도 군부대에서 고장 신고가 들어와도 간혹 배가 안떠 못가는 일이 발생하면 그곳 두 명의 ITS 직원들이 기꺼이 지원군이 되어주기도 한다.

### 해무에도 끄떡없는 ‘기가 마이크로웨이브’

백령 기가 아일랜드가 구축된 지 이제 2개월. 이조합원은 KT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예전보다 깊어졌다고 느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단 인터넷 속도예요. 관내 인터넷의



이호영 조합원

경우 실제 책장을 넘기는 것처럼 속도가 빠르다고 고객들이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TV서비스를 받을 때도 인천에서 동영상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했는데 용량이 적고 대역폭이 좁으니까 중간에 끊어지고 버퍼링 생기를 반복하니 주민들이 짜증을 많이 냈죠. 이제는 잘 나옵니다.”

백령도 같은 해상 지역의 무선통신은 기상변화에 민감해 전파 환경이 불안정하다. 보통 해저에 광케이블을 설치하지만 서해 5도는 육지와 멀고 수심이 낮으니까 어업활동이 잦아 광케이블이 절단될 우려가 있어 운용이 어렵다. 그 대안으로 사용하는 장비가 바로 마이크로웨이브. 하지만 이마저도 해무가 끼면 통신장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천안함 사건 때는 취재로 몰려든 기자들 때문에 이동전화 사용량이 급증해서 통신 과부하가 발생했어요. 20일 동안 통화량이 2배 이상 증가했으니까요.”

그러나 이번에 새로 교체한 ‘기가 마이크로웨이브’는 해무에도 끄떡없다고 이조합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턱적도와 대청도, 장봉도와 소연평도로 이어지는 2가지 루트를 통해 기존보다 5배 향상된 전송용량으로 속도도 최대 1Gbps를 제공한다고.

“어선과 해경선, 여객선에서 자주 발생하던 통신 끊김 문제도 개선됐습니다. 예전에는 주파수 도달거리가 50km라 연결이 자주 끊겼는데 안테나 높이를 75m로 높이고 송·수신에 각각 4개의 안테나(4T4R)를 사용했어요. 기지국 하나로 최대 120km까지 해상 커버리지가 확대된 거죠. 속도도 최대 2배가



이호영 조합원은 “운동회 때면 운동하는 사람이 없고 관람하는 노인만 한 400명 된다”며 우스갯말로 현실을 꼬집었다.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되어도 육지와 연계한 의료서비스가 어렵다는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이번에 스마트워치 100대가 보건지소에 제공됐다. 이 결정을 고민하기까지는 사실 숨겨진 사연이 있다.

노부부가 계셨는데 아내가 육지에 잠시 나간 사이 집을 지키던 남편이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하지만 사후 이틀이 지나서야 아내에 의해 주검이 발견된 것이다.

스마트워치는 앱을 이용해 심박수와 도보수 등을 센서가 5분마다 측정하고 보건소로 전송한다. 만일 심박수가 갑자기 증가하는 위급한 상황이 오면 자녀나 가까운 이웃 등 보호자에게 문자를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어르신들이 무척 좋아해요. 조작이 익숙하지 않아서 간혹 실수로 119로 자동터치 되거나 농삿일하다 흠이라도 묻을까 아끼신다며 차지 않는 경우도 있고, 내장형 배터리라 밤에는 충전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범서비스이니 만큼 개선해서 앞으로 잘 정착 될 거라 봅니다.”

당뇨를 검진하는 요닥서비스도 시행한다. 소변검사지를 소변분석기 ‘요닥엠(Yodac m)’에 장착해 검사를 실행하면 단백질,

지 높아졌고요.” 변화는 또 있다. 백령도 주요 포구 3곳에는 CCTV가 설치됐다. “CCTV가 반응이 좋아요. 두무진에 3개, 장춘에 4개, 용기포에 3개씩 설치했는데 PC나 스마트폰 앱을 깔면 어디에서든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깔았어요. 풍랑일 때 직접 나가보지 않아도 되고 장비가 파손되는지 살펴볼 수도 있어 편리합니다. 배를 소유하지 않은 분들도 앱을 깔아 달라고 해요.”

**달라진 환경에 주민들도 함박웃음**

백령도에는 젊은 사람이 거의 없다. 대다수가 60대 이상이다.



포도당 등 10가지 수치판에 결과가 나타난다.

아이들의 교육환경도 달라졌다. ‘드림스쿨’을 통해 서울에 있는 13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매주 두 차례 ‘백령’과 ‘북포’ 초등학교 학생 13명과 화상으로 외국어 회화와 문화 멘토링을 진행한다. 일대일로 형이나 오빠처럼 친하게 수업하니 학생은 물론 부모들의 반응도 당연히 뜨겁다.

무엇보다 고마운 것은 안전 환경이 개선된 점이다.

황해도와 불과 17km 거리의 백령도는 안보가 특히 중요한데 섬의 26개 대피호에 모두 무전 단말기를 배치해서 무전서비스가 가능토록 했다. 특히 마이크로웨이브 장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 무궁화 5호 위성과 연결한 위성안테나도 설치됐다. 덕분에 대피호 간 또 시·군청 상황실과 긴급한 상황에도 화상으로 연결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백령면사무소 강용환 팀장은 “화상 모니터를 통해 대피호 간 상황을 눈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부분”이라며 “이 좋은 시설이 실제 활용되지 않는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만일 재난 상황에서 떨어진 가족끼리 얼굴을 보며 대화한다면 안심이 될 것”이라 기대감을 나타냈다.

**백령도의 영원한 벚으로**

이호영 조합원은 예나 지금이나 일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단다.

뉘 집 손가락 개수도 알 정도이니 어르신들 댁에 가면 할 일만 하고 냉큼 돌아서지도 못한다. 창틀을 달고 전기 콘센트 갈아 드리는 일은 부지기수다.

“당연히 헤드려야죠! 일이 밀려있을 때는 짜증도 나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재미있어요. 저는 그게 마음 편해요. 노인네들이 고맙다며 냉장고 열어 이것저것 뒤지다 팡에 가서 감자 몇 개 쥐어 주시기도 하고요. 농번기에는 ‘모판 날라 달라’, ‘고춧대 세워 달라’, 가을 되면 ‘고구마 캐 달라’. 그냥 지나치기라도 하면 ‘누구 아들이 안 도와줬다’며 부모님 욕해요. 하하.”

얼마 전 방문한 대기오염측정소에서는 직원들이 랜 선을 깔지 못해 찢절매고 있는 것을 지나치지 못해 팔을 걷어붙였다. 해병유지단, 소청해병부대 등 각 군부대의 유지보수 일도 만만찮은데 언젠가는 케이블 선을 수리하러 간 부대에서 입구부터 군인들이 양쪽으로 도열해 ‘올레!’를 외치며 그를 환영했었다고. 너무나 기뻐던 그때의 기억이 그는 두고두고 힘이 된다.

물론 식은땀 흐르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우연찮게 급하게 현장에 나가게 됐는데 날씨가 안 좋았어요. 낙뢰가 친 겁니다. 하얀 불덩이가 ‘핑!’하고 삼각산 철탑에서부터 동네까지 케이블을 타고 순식간에 내려오는데 정말 아찔했죠. 다친 데 없이 살아남은 게 신기해요.”

그는 조만간 기가 마이크로웨이브가 증설되고 기상대와 관공서 등 일반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에 기가 와이파이가 확충되면 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갖추리라 확신했다.

주민들의 손발을 자처하는 그가 다만 원활한 업무를 위해 꼭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사륜구동.

“2년 전 두무진 해군기지에 보수작업을 갔다가 빙판 진 언덕을 뒤로 40m나 미끄러졌어요. 정말 십년은 감수했습니다!”

백령도 길을 가다보면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만나는 주민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백령도에서 이제 그는 ‘떠나려 해도 주민들이 놔주지를 않는다’고 크게 웃었다.

그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반 농담처럼 군위원에 한번 출마해보겠다는 그의 소망에도 듣는 이는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서해 최북단의 백령도가 첨단 ICT를 통해 육지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주민들을 안심시킨다. 하지만 그 섬에 이호영 조합원이 있다는 사실보다 더하지는 않으리라. 백령도에 가면 진심을 간직한 KT의 파수꾼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다.

# KT의 감성복지와 함께 성장하는 일터 만들기

## 조합원 건의사항 반영 사례

KT노동조합이 수렴한 조합원의 건의사항!!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1 동계 통합 작업복/방한복 개선**  
최신 디자인·트렌드 반영으로 활동성 UP!! 현장 작업에 필요한 기능성도 all-in-one.

통합유니폼 품평회

디자인과 편의성은 물론 KT 근무 여건에 적합, 철저한 A/S도 OK.

어서 오라~ 이런 유니폼은 처음이지?

오오~ 빨리 입고 싶어요!

**2 GIGA 인터넷 품질측정기 현장 공급**

Biz지원팀은 기업 인터넷 전화 업무 수행자에게 지급 (One-Stop 개통/AS 목적)

품질 측정용 프로그램 없이 고객님의 PC 없이도 맥내에서 인터넷 속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3 현장 노후 옷장 대체제 추진**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 낡은 철제옷장을 교체.

**4 직원 자녀(초5~6) 화상영어 교육지원**  
원어민 화상영어, Writing 첨삭(주 1회), Junior TOEIC Test(격월) 제공.

**5 긴급가계자금 대부제**  
긴급한 가계 부담 해소를 위한 대부제로 1인당 1천만원을 5년간 상환함.

힘내요 KT파월~ 2%

오오, 진짜?

**6 통신비 지원대상 확대**  
집전화와 인터넷 전화 통신비 중 1회선을 1만원 지원~!!

우와~ 만원의 행복이네?

신청방법  
HR ▶ 개인업무 ▶ 복지후생 ▶ 통신비지원에서 신청

**7 체육행사비 지원금 인상**  
1인당 연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원

**8 홍보용 시연차량 캠핑카형으로~**  
실내영업이 가능한 고급형!(7월)

alleh kt

**9 개통/AS분야 TOP-CARE 활동 자발적 참여**  
활동 목표 강제부여 지양하고, 자발적 분위기로~.

TOP-CARE

**10 현장 IT공 교체주기 2년으로 단축**  
노후화된 단말기 3년에서 2년으로 교체주기 단축.

세 살되기 전에 회춘한다고??

**11 동절기 개통/AS분야 현장업무 개선**

안전사고 예방 위해  
일몰 후 등주 등 옥외작업 자제

① 옥외 작업 필요 시 2인 협업 시행 등 안전사항 필히 확인  
② 일몰 후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무리한 현장작업 금지

**12 연차휴가 제도 개선**  
반차 일수 6일에서 10일로 확대.

다 왔대!

**13 현장 무효출동 최소화**  
이사 고객의 집 정리가 미처 안 되어 재차 방문 후 개통하는 현실 감안.

고객님~ 방문 예약일을 하루 뒤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14 GB(T) 잔여포인트 이월**  
영업성과 인정을 강화, 2014년 11~12월 실적 이월!

POINT

**15 업무용차량 및 PC 대개체**

- 렌탈차량 대 개체/연장 추진대상 : 총 1,160대
- 구매차량 대 개체 추진대상 : 총 935대

일할 맛 내네!

역시 KT 장이요?

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조합원 의견 청취는 계속됩니다.

# 까다로운 기업 상품, 몽땅 해결해 드립니다!

## 본사지방본부 기업IP컨설팅센터지부

수장이 현명하면 팀워크가 좋다. 기업IP컨설팅센터지부를 보고 새삼스레 든 생각이다. 하물며 저력의 성과가 가장 힘든 시기에 드러났다면 그 리더십과 팀워크는 의심해서 무엇 할까. 올해 전국대의원대회 우수지부 표창에 빛나는 기업IP컨설팅센터지부 조합원들은 그 단단한 힘을 앞으로도 쪽 몰아갈 기세다. 함께 등 토닥이고 함께 전진하는, 정면 돌파를 두려워하지 않는 패기의 해결사들을 만나러 워크숍 현장을 찾아갔다.



왼쪽부터 조영욱 선거관리위원대표, 조선미 집행위원, 이희선 지원부장, 정상곤 집행위원, 이영인 지부장, 박종진 집행위원, 신숙자 집행위원, 최원희 여성부장, 강인석 조직부장, 엄재호 홍보부장

### 전문성 요하는 센터의 복잡한 업무

향한 곳은 춘천이다. 해거름의 바람이 아카시아 향을 진하게 흩뿌리던 금요일 오후. 싱그러운 녹음 사이 자리한 한 민박에 반가운 얼굴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낸다. 반차를 내고 모인 본사 기업IP컨설팅센터지부 소속 조합원들이다. 이영인 지부장 체제 이후 그것도 야외에서 가지는 첫 지부 워크숍인 만큼 표정들이 밝다.

이날 모인 조합원들은 모두 10여 명. 수도권 센터의 각 부서장과 집행 간부들이 주축이다.

기업IP컨설팅센터는 기업고객의 모든 회선상품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고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일반기업 그리고 단순 사업장을 포함한 기업고객들의 고객만족(CS) 향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물론, 회선상품 주문(S/O), A/S와 상담, 고장 지원, 개통, 고객의 소리(VOC) 대응 지원 및 개선 활동, 이밖에 청구서 발행(Billing)지원과 정산 등을 책임진다. 한마디로 기업고객사업과 관련한 업무가 모두 센터의 몫이다.

기업IP(Internet Protocol)컨설팅센터가 처음 생긴 것은 94년 11월이다.

당시 명칭은 데이터통신국이었다. 고객의 문제제기나 고장이나 개통 등의 요구에 대응하는 시간 지연을 단시간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다가 수도권의 전화국 내 전용회선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모아 델몬스(DELMONSE, 전용회선 집중운용시스템) A/S를 시작한 게 출발점이다.

이후 업무의 단순성을 보완하기 위해 보다 전문화된 기업고객센터로 전환하고 지난해 말 정식으로 지금의 명칭을 갖게 된 것이다. 현재 인원은 94명이다.

### 우수지부의 소통방식

기업고객의 회선사업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곳인 만큼 기업IP컨설팅센터 조합원들은 전문직이라는 자부심이 강하다. 현장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서도 원격으로 꿰뚫어 보고 즉시 지원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기업고객과 상품에 대한 독보적인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업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마케팅 부서만 해도 영업과 BH 개발 등의 원하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기업IP컨설팅센터는 수도권 외에도 부산센터와 충청센터, 호

남센터도 있는데 모두 수도권의 이영인 지부장이 관할한다. 특히 이번 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 기업IP컨설팅센터지부가 우수지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자축의 의미에 더해, 업무에 매진하며 숨 가쁘게 돌아가던 일상을 잠시 멈추고 다시금 재정비하자는 뜻에서 오늘의 자리도 과감하게 만들었다.

이영인 지부장은 센터의 조합원들은 회사 관점에서도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라 강조했다.

“기업고객이나 기업상품 관련 업무는 매우 다양하고 까다롭습니다. 우리 센터가 수행하는 기업고객 개통/SO, 고장/AS 지원 등 다양한 업무들이 적어도 전입 후 6개월 이상은 지나야 가능한 업무들입니다. 해당 지식과 기술이 숙련되어야만 정상적인 업무 투입이 가능할 정도로 전문성을 요해요. 또 이런 부분에 의존해야만 하는 사내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센터의 일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인 지부장이 센터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 역시 94년이다. “86년에 영동전화국에 입사해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 등 각종 행사의 통신지원 업무를 하면서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센터와의 인연은 94년 델몬스에 참여하면서 부터죠. 노동조합과의 인연도 데이터통신국에서 지부가 창설되고 96년부터 본격적인 인연이 시작된 겁니다. 당시에는 사무부장을 맡아 직무대행을 했는데 이후에도 홍보부장, 집행간부로 계속 일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적극 고사하던 지부장의 자리를 차마 거절하지 못한



이영인 지부장



데에는 센터에 대한 자신의 애정이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감당하기 어렵다 생각하고 처음에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륜과 경험을 쏟아내 소통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본격적으로 지부를 이끌어보자 마음먹었습니다. ‘힘들지만 하자!’고 말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의 소통 행보는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40대 연령층이 많은 지부의 특성 상 많은 대화를 통해 활기찬 분위기를 이끌어갔다.

“지부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대화의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연배가 있는 조합원들은 부담 없이 지부사무실에 와서 대화도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잘 오지 않으려 하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 사무실을 개방했죠. 사비를 들여 음료도 구비하고 아침에 오면 커피도 마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보다는 인사문제나 집안문제, 금전적 문제까지도 터놓고 이야기하고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에도 공을 들이는데, AS/상담부서 소속인 이지부장이 30년 현장에서의 모든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해 업무에 즉각 활용하도록 한다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공부도 하지 않고 손해 보는 일은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이도록 부서장들과 협력해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행히 다들 좋아해요.”

**모범이 되는 지부로 성장할 것**

수도권 기업IP건설터는 팀워크가 정말 좋다. 그간의 노력으로 동료들 상호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이지부장의 적극적

인 행동이 낳은 결과다.

강인석 조직부장은 “늘 솔선수범하고 자신감이 있는데다 은근히 고집도 있다”고 이영인 지부장의 리더십을 소개하며 그것이 바로 우수지부로 선정된 데 한몫을 한 것이라 했다. 다만 지난해 수술을 받을 만큼 몸이 좋지 않았던 이지부장이 이제는 조합원을 챙기는 만큼 당신의 건강도 살펴서 조합을 위해 더 힘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최원희 여성부장은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달라서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지부장께 고마움을 전하고, 환기가 힘들고 카페트가 깔린 실내에서 종일 근무하는 환경을 고려해 바닥공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섭섭한 일도 있다. 6월 1일자로 재무실 소속의 정산센터가 새로 발족되면서 기업IP건설터센터 내 정산부서는 이제 센터로부터 분리된다. 이번 워크숍이 마지막 조합 활동이 될 거 같다는 정산부서 소속 업체호 홍보부장은 “이지부장과 지낸 1년의 시간은 참 편안했다”며 “회사의 합리적 차원에서 떠나게 됐지만 기업IP건설터센터지부는 더 좋은 지부가 됐으면 한다.”는 아쉬움을 못내 나타냈다.

이러한 뜻에 힘입어 이영인 지부장은 밤낮없이 고생하는 조합원들을 지원하고 고충을 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한다는 각오다.

“자부심을 갖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내용 전달식으로 지부를 운영하기 보다는, 동호회 활동이나 경조사 등 기회가 닿는 대로 한 분씩 찾아다니며 어려움은 없는지 바라는 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지금처럼 진솔한 대화 나누고 의견을 수렴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전국에 안 가본 산이 없을 만큼 등산을 좋아한다는 이지부장은 앞으로 등산과 낚시, 당구, 축구 등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고, 지역센터 지부들과의 소통기회도 보다 자주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 센터만 모인 이번 워크숍의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 가까이는 올 가을 지역센터 조합원들과의 워크숍을 염두 해 두고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야심찬 포부를 잊지 않았다.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집행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에 힘입어 저 또한 조합과 자주 소통하며 센터 내 어려운 일들을 함께 의논하고 풀어가겠습니다. 지부장으로서 KT노동조합의 일원으로서 본사지방본부 및 중앙을 위한 새 희망의 디딤돌로 거듭나겠습니다.”

노력하며 일구어 온 자취가 빛나는 수도권 기업IP건설터가 또 어떤 새로운 성과들을 보여줄지. 단단하게 엮인 힘이 있는 한 그들은 분명 모두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 끝은 우리가 낸다!



기술적 문제든 S/O 처리든 기업고객 상품의 까다롭고 복잡한 업무는 우리에게 맡겨라!  
숨 돌릴 틈 없는 업무와 마감과의 피 말리는 추격전에 맞서 전문가들이 폭풍 같은 반격을 시작한다. 기업고객사업의 모든 문제를 조용하고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영인 지부장. 그리고 감초처럼 그를 돕는 조합원들의 콤비. 완벽한 함정에도 거리낌 없이 헤쳐 나가는 기업IP의 진정한 해결사들이 온다

# 수빈이에게 꿈과 희망을 준 글로벌 어학연수의 추억

외국여행이 소원인 수빈이에게 꿈같은 행운이 찾아왔다. 아버지가 노동조합을 통해 신청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것.

“수빈아, 보름 뒤에 출국이야. 어서 짐 싸야지.”

마치 농담하듯 던진 아빠의 한 마디에 얼떨떨한 마음으로 부랴부랴 짐을 싣 수빈이는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여권을 신기한 듯 바라보며 생애 첫 외국 나들이를 간다는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캐나다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조합원 자녀들에게 잊지 못할 뜻 깊은 추억이 되었다.

## ‘두근두근’ 중학생 소녀의 첫 해외체험

“출국 일주일 전부터 짐을 싸고 풀기를 반복하면서 들뜬 마음에 잠을 못 이루더라고요.”

아빠의 말이 끝나자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 하며 수빈이가 반쯤 붉어진 얼굴로 수줍게 손사래를 친다. 어릴 적 가족들과 함께 국내선을 탔던 것이 비행기 여행에 전부였던 당시 중2 소녀 수빈이에게 한 달 동안의 북미 어학연수는 꿈같은 것이었다. 강원고객본부지부 남근우 조합원은 지난해에 그랬듯 올해에도 ‘안 되겠지’하는 마음으로 별다른 기대 없이 신청을 했지만 예쁜 딸 수빈이를 위한 아빠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덜컥하고’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다.

“기말고사 중에 아빠가 어학연수 간다는 말을 갑자기 해서 2주 만에 모든 출국 준비를 했거든요. 비행기 탄다는 설렘과 즐거움 때문에 정말 아무 느낌이 안 났어요.(웃음)”

부모 없이 그것도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으로 딸 아이 혼자 보내는 것이 다소 다른 부모들에겐 꽤나 걱정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KT노사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이라 남근우 조합원은 안심하고 수빈이를 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

“수빈이가 성격이 쾌활하고 영어성적도 상위권이라 외국에 나가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희

형편에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더욱이 요즘같이 사교육 부담이 너무 큰 마당에 노사가 지원해주신 어학연수는 아이에게 정말 커다란 선물이 되었습니다.”

## 모든 것이 새로웠던 30일간의 북미 체류기

KT노동조합은 전국의 직원 자녀 중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계·동계 각 30명을 추천해 북미 어학연수 특전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3년째를 맞는 어학연수는 그 횡수를 거듭할수록 내실을 다져가고 있다. 지난해 어학연수 프로그램에서 수빈이가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LA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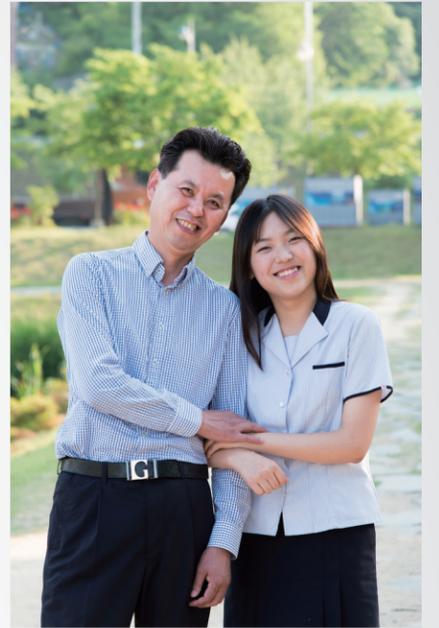
“일주일 동안 체류하면서 디즈니랜드와 할리우드의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관광했어요. UCLA도 찾아가는데요. 캠퍼스가 엄청나게 커서 도무지 돌아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방대한 규모의 유원지와 대학 캠퍼스를 누비고 다니느라 일주일일이 너무나 짧았던 수빈이는 둘째 주부터 캐나다 밴쿠버 남쪽의 써리(Surrey) 시에 머물면서 현지 아이들과 함께 정규 수업에 참여했다. 수빈이는 캐나다 현지의 교육환경과 더불어 음식 문화와 예절에서도 한국과 껍이나 다른 점을 느꼈다고 한다.

“‘눈’을 주제로 캐나다 친구들과 과학 수업을 들었어요. 소의 눈을 직접 해부해보며 실험을 통해 안구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설명하시면 학생들이 필기하는 것이 수업의 전부인 우리나라의 방식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실험 위주로 공부하고 학생들의 질문을 통해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캐나다 친구들의 진지한 수업 태도에 수빈이 역시 한국을 대표해 찾아온 유학생의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연수과정에 임했다. 현지 학생들의 수업 분위기에 이어 수빈이가 경험한 또 하나의 문화충격은 바로 슬랭(Slang) 언어, 즉 비속어나 욕설을 하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만약 욕을 한마디라도 하면 상벌위원회를 통해 즉시 정학 이상의 중한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니 욕설과 폭력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나라 학교와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다.

“학교 수업 후에는 한국에서 같이 간 아이들과 만나 야외에서 스포츠활동을 했어요. 스케이트, 스키, 썰매도 타고 컬링과 라크로스(북미 인디언의 전통 놀이에서 유래한 스포츠)도 할 수 있었어요. 미국에 있었을 땐 많은 곳을 관광할 수 있었는데 캐나다에선 공부만 많이 하고 많이 둘러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어요.”



남근우 조합원 · 남수빈 학생

30일 동안의 어학연수는 난생 처음 해외체험을 경험한 소녀의 호기심을 모두 채워주기엔 많이 부족해 보인다. 그렇게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수빈이를 향해 남근우 조합원은 대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30명의 어학연수생 중에서 어느 누구보다 진지하게 수업에 임했고 적극적인 태도로 연수생활을 마쳤기 때문이다.

“출국할 때만 해도 공항에서 아이들끼리 서로 서먹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더군요. 외국 가서 적응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귀국하고 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 께안고 인사 나누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더욱 밝고 자신감을 얻어 돌아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학연수 다녀온 후 수빈이가 ‘또 보내달라’며 벌써부터 조르고 있어요. 아이에게 큰 선물을 해주신 노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일 동안 함께했던 30명의 직원 자녀 어학연수생들은 지금도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다. 벌써 반년이나 지났지만 디즈니랜드의 추억과 로키산맥의 울창한 숲에서의 야외활동은 마치 지난주의 일인 듯 지금도 생생하기만 하다. 방송국 예능 PD를 꿈꾸는 중학생 소녀 수빈이에게 이번 어학연수는 그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된 듯하다.



# kt Wiz-Day, 극적인 역전승을 이끈 350명 조합원의 함성

창원지부 조합원들에게 오늘 경기는 매우 특별하다. 프로야구가 생긴 지 30년 동안 마땅한 연고팀이 없어 응원할 의욕을 느끼지 못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연고팀인 NC 다이노스와 회사팀인 kt 위즈의 경기를 관람하게 된 것. 응원할 팀이 줄지에 2개나 생긴 조합원들은 경기의 승패를 떠나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하나됨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가졌다. 조합원들의 감성복지 차원으로 창원지부가 처음으로 준비한 kt Wiz-Day의 의미는 그래서 더욱 크기만 했다.

## 조합원을 하나로 모은 kt Wiz-Day

쨍쨍하던 햇볕이 서서히 기울더니 마산야구장 조명탑에 하나둘씩 불빛이 들어온다. 오후 6시가 되자 열성팬들은 경기 시작 30분 전부터 일찌감치 관중석을 차지하고 선수들의 프리배팅 모습을 폰카에 담으며 경기 전 분위기를 돋구어 간다. 관중들은 단연 이 지역 연고팀인 NC 다이노스를 일방적으로 응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원정팀인 kt 위즈가 위축될 필요는 없다. 창원지부 소속 조합원 200여 명과 경남유선센터, 부산고객본부, 진주지부 조합원들 및 가족들 150여 명이 kt 위

즈를 응원하러 야구장을 찾았기 때문이다. 창원지부의 Wiz-Day 첫 번째 행사는 지난 5월 19일 kt 위즈와 NC 다이노스의 올 시즌 4번째 경기를 통해 진행됐다. 부산지방본부 김상찬 창원지부장도 조합원들과 함께 야구장을 찾았다. “마산, 함안, 밀양, 진해 각 4개 지점의 거리가 멀어 창원지부 조합원들이 자주 만나고 왕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Wiz-Day는 회사 야구팀 응원을 계기로 조합원들이 한 식구로서 공감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페밀리데이’로서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김상찬 지부장



마법을 현실로 승리의 kt 위즈

## Wiz-Day가 사내문화로 자리 잡기를

김상찬 지부장과 350여 명의 조합원들이 3루 관중석 2층에 모여 앉아 열심히 막대풍선을 두드린다. 응원열기가 점점 달아오르는 사이 오늘 Wiz-Day에 참석한 박동균 조합원(마산지점 CS건설팀) 가족도 외야 테이블석에 앉아 경기를 지켜본다.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팬이었는데 그동안 야구장을 못가서 많이 아쉬웠어요. 고객들을 찾아가 직접 대면하며 클레임을 해결하고 상품 소개하는 MOT업무를 하다보니 스트레스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동료들과 함께 간혹 야구장을 찾아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특히 오늘 Wiz-Day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처음으로 야구장을 찾게 되어 기분이 정말 즐겁습니다.”

여섯 살 쌍둥이 남매를 둔 박동균 조합원은 술자리가 대부분인 사내 회식문화에서 벗어나 마음껏 소리 지르고 응원하며 회사에서 느낄 수 없는 묘한 희열과 동료애를 경험하는 데 야구 응원을 최고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번 Wiz-Day가 조합원들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열렸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내비친다.

올해 창단한 kt 위즈는 현재 2할이 조금 못 미치는 승률로 10개 구단 중 최하위를 기록하며 신생팀으로서의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는 중이다. 하지만 구성원 대부분이 프로 경험이 부족한 어린 선수들로 채워진 것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성적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젊은 선수들 특유의 화끈한 패기로 경기를 순식간에 반전시키는 짜릿한 승부를 기대할 수 있어 관전의 묘미는 더욱 커지기만 한다.

## 조합원의 응원으로 일궈낸 특별한 승리

박동균 조합원 가족의 응원에도 불구하고 kt 위즈는 3회말 NC 김태군으로부터 적시 2루타를 허용하며 선취점을 내준다. 3루 관중석에 앉아 kt 위즈를 응원하는 조합원들이 함성을 내쉬며 아쉬운 표정을 짓는다. 7연패를 겪고 있는 kt 위즈가 자칫 8연패 늪에 빠지거나 않을까 긴장감마저 감도는 가운데 응원단 맨 앞자리에 앞에 앉아있는 김재만 조합원(창원지부 영업기획팀)만은 목이 터져라 더욱 큰 목소리로 응원을 펼친다.

“입사하고 처음으로 야구장을 찾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곧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경기 예감이 무척 좋아요. kt 위즈 파이팅!”

김재만 조합원의 응원이 선수들에게 전달됐는지 kt 위즈가 이내 반격을 가한다. 김동명이 2루타를 치고나가더니 박용근과 심우준이 차례로 적시타를 터뜨리며 2:1로 화끈하게 역전을 시킨다. 응원단 분위기는 순식간에 급반전이 되더니 350여 명 조합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막대풍선을 두드리며 파이팅을 외친다. 백은경 조합원(부산고객본부지부 Biz영업2팀) 역시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NC를 응원했는데 오늘부터는 확실히 kt 위즈 팬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 kt 위즈가 너무 성적이 안 좋으니까 지인들 만나면 ‘야구팀에 투자 많이 해서 좋은 성적 거두고 회사 이미지도 좋아지길 바란다’는 말 많이 듣거든요.”

홈구장 절반을 메운 1만여 명의 NC 다이노스 팬들에 비하면 오늘 모인 350명 kt 위즈 응원단의 수는 초라해 보인다. 하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열심히 응원한 조합원들 덕에 kt 위즈는 이대형의 적시타로 2점을 추가해 4:2로 경기를 보기 좋게 마무리한다. 7연패의 사슬을 끊은 것은 젊은 kt 위즈 선수들의 패기와 더불어 Wiz-Day에 참가한 350명 조합원 열정이 빛을 발한 결과다. 창원지부에서 준비한 Wiz-Day 첫 번째 행사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두 번째 Wiz-Day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왼쪽 - 박동균 조합원 가족  
오른쪽 - 김성필 조합원 가족

# 리얼 TV 역사 돌아보기 세계를 열광시킨 신기한 요술상자의 등장

대중매체는 신문이나 라디오, TV, 인터넷 등 다양하다. TV는 이중 단연 이슈를 끄는 매체. 이제 TV는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닌 시청자와 소통하고 다양한 기능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한 기기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지금은 어디서나 쉽게 접할 정도로 흔하지만,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신기한 요술상자로 여겨졌다. 작은 상자 안에서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 요술상자는 화려한 등장과 함께 그간 대중문화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왔다. 현재에 이르러서도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TV의 어제와 오늘을 따라가 본다.

우리나라에서 TV가 보급되지 않았을 때는 영화가 문화 전달 창구였다. 80년대 접어들어 컬러 TV 시대가 되자 영화뿐 아니라 라디오까지 '조연' 매체가 됐다. 당시만 해도 TV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보는 일종의 소통 매개체였다. 집에 TV만 있으면 부유한 집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척도였다. 부의 상징이던 TV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생산업체의 가격 인하로 인해 점차 대중화된다.

21세기 들어 인터넷이 보편화 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TV는 더 크고, 가볍고, 다양한 기능이 접목된 새로운 모델로 진화했다. PC나 스마트폰으로까지 보게 되면서 마을 주민이 함께 보던 매체는 아주 개인화된 형태로 바뀌었다. '바보상자'라고도 불리며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많았지만 아직까지 정보를 얻거나 가족 간 시간을 보내는데 요긴한 매체로 남았다.

## 국민적 열망이 이뤄낸 TV의 빠른 보급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컬러 TV 시대가 시작된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우리나라가 컬러 TV를 생산한지 불과 20년 만에 고급형 디스플레이 TV 시장에서 삼성과 LG는 세계적인 선두 기업이 된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평판 디스플레이 TV 시장 점유율은 46%로 세계 고급 TV 시장의 절반을 장악했다. 초고화질 UHD TV는 2017년까지 세계 시장의 2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그리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지만 국내 최초로 1961년 12월 KBS가 개국하고 수상을 수입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새삼 놀라운 성장이다. 방송국이 개국할 당시 TV는 기술력 부족으로 미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해야 했다. 금성사(현 LG)는 당시 가장 큰 전자회사로 국내 최초로 TV 개



발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전력이 충분치 않아 생산을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다고 한다. 기술력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금성은 기술연수팀을 일본의 '히타치'로 파견한다. 당시 금성 TV는 히타치 TV를 그대로 모방했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부품 국산화율 50%를 넘기고, 수입 부품 조립만이 아닌 개발 단계까지 끌어올렸다. 개발 4년 만에 국내 최초 TV 'VD-191'가 1966년 8월에 첫 선을 보인다.

이때 TV 가격은 6만 원대로 월평균 소득으로 따지면 5개월 치 월급에 해당됐다. 상당히 비싼 편이었지만 추첨해서 판매할 정도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이런 수요의 배경에는 프로레슬링이 한몫했다. 당시 프로레슬링 인기가 대단했는데 김일 선수의 박치기 기술로 일본을 무릎 꿇리는 모습을 보기 위해 TV는 불티나게 팔렸다. 국민적 영웅이 된 김일을 TV에서 보며 환호와 기쁨의 갈채를 보냈다. 당시 프로레슬링에 대한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능하려면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때를 떠올려 보면 알기 쉬운 것 같다.

LG에 이어 삼성전자는 1970년 일본 산요와 합작한 TV를 생산했다. 이후 컬러 TV는 1975년 아남나소날(현 아남전자)이 최초로 개발했고, 80년대부터 컬러 TV 시대가 시작된다. TV는 국민적 열광과 정부의 물품세와 특판세를 낮추는 세금 인하 정책, 기업의 적정 이윤 선정에 힘입어 빠르게 보급되기에 이른다.

## 새로운 TV 역사의 시작과 그늘

2013년 1월 1일부터 지상파 방송국에서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함에 따라 '브라운관 TV'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대화면을 원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크기를 늘리기에 한계가 있는 브라운관 TV 시대는 지나고 'PDP TV', 'LCD TV'가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40인치가 넘어도 두께가 얇아 벽에도 걸고 디자인도 예뻐졌다. 이들 TV는 초기에 가격이 1,000만원에 가까워 보급이 어려워 보였지만 점차 가격이 빠르게 하락해 일반 가정에서도 흔히 보게 됐다. 현재 고가의 '울트라HD TV'도 그간의 보급화 속도에 비춰보면 차츰 가격이 내려갈 소지가 높다.

'울트라HD TV'와 더불어 차세대 TV로 주목 받는 제품은 'OLED TV'다. 일반 LCD TV보다 반응 속도가 1,000배 이상 빠르고 자연스러운 색감을 표현해 꿈의 화질이라고 불린다. 최근에는 3D 기능을 포함한 '곡면 OLED TV'까지 공개됐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응용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한 '스마트 TV'는 SNS, UCC, 정보 검색 등 다양한 기능 활용까지 가능해졌다. 최초의 TV가 탄생한 이후 이제 단순 방송 시청을 넘어 디지털 종합 멀티미디어 기기로 진화 중이다. 이같은 TV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대중매체로서의 기능은 한층 다양해졌다. 한동안 보지 못하면 금단현상까지 생길 정도다.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매체가 되면서 몇 가지 문제점도 낳고 있다. 하드웨어가 아닌 콘텐츠의 문제다. 예능이나 드라마뿐 아니라 뉴스에 이르기까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더욱 자극적인 내용이 담긴다. TV 속 내용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서 갖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가족 간 대화 없이 TV만 보는 현실은 이제 낯설지 않은 장면이다.

이같은 TV 유해성과 중독성을 우려하며 미국에서는 '1년에 1주일 TV 끄기'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고, 국내에서는 'TV 안 보기 시민모임'까지 출범했다. TV는 과연 '바보상자'로만 남게 될까. 눈부신 TV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 안에 담기는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해지는 시기에 와 있다.

# 2015 임직원 하계 휴양시설 운영 안내

## 수련관

- 운영기간 : 6월 30일 ~ 8월 31일
- 휴관일정 : 도고(7월 5일 ~ 7일, 2일 휴관), 경주(7월 5일 ~ 8일, 3일 휴관)
- 대상시설 : 도고, 지리산, 대관령, 경주, 거제, 무주
- 승인일시 : 6월 11일(목)
- 하계휴양기간 특별운영
  - 기간 : 7월 17일 ~ 8월 16일
  - 기수배정 : 전 기수 '2박 3일'로 운영(생활/단체/외부입소 미운영)

## 하계휴양소

- 운영기간 : 7월 17일 ~ 8월 16일
- 승인일시 : 6월 11일(목)
- 대상시설 : 18개소(33페이지 참조)
- 기수배정 : 2박 3일(단, 제주는 3박 4일)

## 콘도

- 성수기 지정 기간 : 7월 16일 ~ 8월 24일
- 승인결과 발표
  - 한화/금호 : 6월 19일(금)
  - 그 외 : 6월 25일(목)

### ■ 담당자 연락처

- 수련관 : 031-727-2491
- 하계휴양소/콘도 : 031-727-2861

### ■ 주의사항

- ※ 하계휴양소 운영기간(07.17~08.16)은 휴양시설 중 1건만 승인 가능(중복 불가)
- ※ 신청 및 승인 기간 필히 준수(기한 내 미처리시 별도 처리 불가)
- ※ 수련관/하계휴양소는 배정 완료 후 잔여객실 추가 신청에 대해 전사공지 별도 시행



## 하계휴양소

### 강원권

- 금강산콘도(고성)**
- 평형 : 30평 (방 2개 / 주방 및 거실 / 화장실 1개)
  - 주소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금강산로 416
  - 홈페이지 : www.mibong.co.kr

### 강원권

- 현대아이파크**
- 평형 : 30평 (객실 1 / 주방 및 거실 / 화장실 1개)
  - 주소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고성대로 75-16
  - 홈페이지 : www.i-parkcondo.co.kr

### 강원권

- 금호리조트 설악**
- 평형 : 27평 (방 2개 / 주방 및 거실 / 화장실 1개)
  -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사당골길 43
  - 홈페이지 : www.kumhoresort.co.kr

### 강원권

- 동해콘도**
- 평형 : 25평 (방 2개 / 주방 및 거실 / 화장실 1개)
  - 주소 :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3707
  - 홈페이지 : www.donghaecondo.co.kr

### 강원권

- 더클래스 300콘도**
- 평형 : 11평 (방 1개 / 주방 및 거실 / 화장실 1개)
  -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288-22
  - 홈페이지 : www.theclass300.com

### 충청권

- 하이원호텔**
- 평형 : 30평 (객실 2 / 주방 및 거실 / 화장실 1개)
  - 주소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7길 399
  - 홈페이지 : www.high1.com

### 충청권

- 대명리조트(단양)**
- 평형 : 19평 (방 1개 / 주방 및 거실 / 화장실 1개)
  - 주소 : 충북 단양읍 상진리 산 8번지
  - 홈페이지 : www.daemyungresort.com

### 충청권

- 머드린호텔**
- 평형 : 9평 스탠드 (원룸 / 주방 및 거실 / 화장실 1개)
  - 주소 : 충남 보령시 신항동 2270-2
  - 홈페이지 : www.mudrin.com

### 경남권

- 문경레저타운**
- 평형 : 27평 (방 1개 / 주방 및 거실 / 화장실 1개)
  - 주소 : 경북 문경시 문경읍 웰빙타운길 7-12
  - 홈페이지 : www.mglie.co.kr

### 경남권

- 성호이스트힐리조트**
- 평형 : 25평 (방 2개 / 주방 및 거실 / 화장실 1개)
  - 주소 : 경북 경주시 외동읍 패릉리 1233
  - 홈페이지 : www.easthillresort.co.kr

### 경남권

- 해운대그랜드호텔**
- 평형 : 12평 (원룸 / 객실 / 화장실 1개)
  -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351-2번지
  - 홈페이지 : www.grandhotel.co.kr

### 경남권

- 크라운하버호텔부산**
- 평형 : 18평 (원룸 / 객실+객실1 / 주방 및 거실 / 화장실 1개)
  - 주소 :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114
  - 홈페이지 : www.crownharborhotel.com

### 호남권

- 유로빌리지36**
- 평형 : 27평 (객실 2개 / 주방 및 거실 / 화장실 1개)
  - 주소 :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440-2번지
  - 홈페이지 : www.gunsanvill.co.kr

### 호남권

- 일성지리산리조트**
- 평형 : 21평 (객실 2개 / 주방 및 거실 / 화장실 1개)
  - 주소 : 전북 남원시 산내면 천왕봉로 626-25
  - 홈페이지 : www.ilsungresort.co.kr

### 호남권

- 강빛마을밸리홈**
- 평형 : 16평 (방 1개 / 주방 및 거실 / 화장실 1개)
  - 주소 : 전남 곡성군 죽곡면 강빛마을길 10(태평리 798)
  - 홈페이지 : www.valleyhome.co.kr

### 호남권

- 호텔현대목포**
- 평형 : 11평 (객실 1 / 주방 및 거실 / 화장실 1개)
  - 주소 :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1
  - 홈페이지 : www.hyundaihotel.com

### 제주권

- 빌레리조트**
- 평형 : 21평 & 26평 (방 1개 / 주방 및 거실 / 화장실 1개)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365-2번지
  - 홈페이지 : www.villae.co.kr

### 제주권

- 오리엔탈호텔**
- 평형 : 9~11평 (원룸 / 주방 및 거실 / 화장실 1개)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탐동로 47 삼도2동 1197번지
  - 홈페이지 : www.oriental.co.kr

# Voices of Readers

고 객 의 소 리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은 더 좋은 [새희망의 '길']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새희망의 '길']을 읽은 느낌과 생각을 (mabin@kt.com)으로 보내주세요.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호남전북유선운용센터 이성환

새희망의 '길'을 읽고 나서 유익한 정보가 참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위주로 직원의 일하는 모습을 자세히 얘기해주고 격려해주면 더 애사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많이 올려주세요.

## 대구유선운용센터 권성대

감성복지 카툰을 보며 느낀건데 KT에서 실시중인 감성복지 제도는 노사가 직원의 자존감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직원 가족까지 보듬는 모습에 애사심 및 자긍심을 느낍니다. 또한 앞으로 추가될 감성복지 프로그램에 기대가 많습니다. 더 많은 직원과 가족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노동조합이 되어 주세요.

## 플랫폼 개발단 김상열

화장실에 새로운 '길'이 나올때마다 읽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의 소식과 회사의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번호에서는 감성복지에 관한 내용이 아주 재미있고 유익했습니다. 만화로 하니 더 이해하기 쉽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 부탁드립니다.

## 서광주지부 김경순

도전 60일 코너 정말 좋아요. 참신한 내용의 자신과의 싸움, 인내, 극기 등 참으로 멋진 도전정신을 키워주는 매력코너라고 생각합니다.

## 청주지부 황순민

매번 소식지가 올때마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지는 조합에서 하는 많은 활동과 회사의 이야기가 잘 버무려진거 같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인해 놓치고 있던 소식들을 쉽고, 유익하게 정리하여 전달해주신 노동조합에 감사드립니다.

## 대구유선운용센터 이용원

매번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에 유용할 뿐 아니라 실생활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사항을 잘 설명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수도권강남고객본부 김영미

복지관련 분야와 다양한 분야의 다른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길,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서무선운용센터 임성진

출연하고 있는 입장에서 도전 60일이라는 칼럼에 당연히 눈이 갔습니다. 건강과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고, 도전과제가 정해져 있지 않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도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합원들도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 광주유선센터 안필범

커피 한잔에 담긴 이야기 재밌게 읽었네요. 압축식 기계 개발로 에스프레소를 만들어내고 물이나 우유를 적절히 섞어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카페라떼, 카라멜 마키아토 등 다양한 종류의 친숙한 커피로 재탄생 된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앞으로도 유래를 알수 있는 생활 속 이야기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수도권강북고객본부 이윤정

어릴적 밤하늘을 빼곡히 채운 별을 보며 많은 꿈을 키웠는데, 이번 노보에서 별자리 이야기를 다뤄 인상깊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커피에 대한 역사까지 알게 되어 읽는 내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호에도 모두가 공감가는 이야기를 많이 다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KTTU QUIZ

전남 신안군 임자도의 '기가 아일랜드'와 경기도 파주시 대성동의 '기가 스쿨'에 이어 KT가 구축한 세 번째 '기가 스토리' 지역은?(16페이지 참고)

정답 보내주실 곳 : mabin@kt.com(김민수 편집국장)

※ 보내주실 때 반드시 이름/소속/연락처/주소를 함께 기재해 주셔야 상품권이 배송됩니다.

## ANSWER

정답과 함께 소식지 '길'을 읽고난 소감을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WED  
may, 27 2015

# NEWS

№ 34747/53

직장인 김모씨(46)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신이 가입한 A상조업체가 폐업하고 B업체로 인수된다는 소식을 들은 것. 지난 5년간 60여회에 걸쳐 200만원을 납입해 온 김씨는 애타는 마음에 A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A업체는 "회사가 B상조업체에 인수됐으니 B업체로 문의 하라고 했다" 그런데 B업체에선 "A업체로부터 회원정보는 넘어왔지만 그간 A업체에 납입한 돈에 대해선 책임을 질 수 없다. 앞으로 새로 납입하는 돈에 대해서만 상조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어이없는 답이 돌아왔다.

더 문제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전체 낸 돈의 20%에도 못 미친다는 것.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고자 했지만 상조업체가 공제조합에 고객 납입금으로 신고·예치한 돈이 4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다.

고객 피해보상에 대비해 상조업체는 가입자가 낸 돈의 절반을 공제조합에 적립해 뒀어 하지만 A업체가 회원수와 납입금을 축소해서 신고해 온 것이다. 김씨는 "상조업체가 갑자기 망했다고 하는데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 중간기사 생략

문제는 부실상조업체들의 난립이다. 상조 시장이 급성장하다 보니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 기반의 상조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2004년 98개였던 상조업체 수는 지난 2009년 317개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매년 10~20개씩 감소해 지난해 9월 말에는 228개까지 줄었다. 올 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8개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돼 문을 닫았다.

... 중간기사 생략

국내 상조시장 감사를 담당하는 봉원오 공정위 조사관은 "2010년 상조업체들에 관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법 규정이 생긴 후 지난 5년여 동안 총 90여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

특히 올 1분기에만 8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는 건 꽤 큰 숫자다. 8개 업체 중 2곳은 자진 폐업했지만 나머지 6곳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고객 납입금 중 50%를 예치해야 하는 등 상조업 관련 규정을 어겨 강제로 계약해지 당하고 등록이 취소된 사례다.

이중에는 강원도 지역에서 상조로 처음 등록한 AS 상조등 규모가 꽤 큰 업체도 포함돼 있다"며 한마디로 상조업체 사기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 1809호 (2015.05.27~06.02일자)기사입니다>

## (주)다운플랜은 이렇게 운영됩니다.

- 부실상조 업체는 고객납입금(회비)을 훼손하여 부실이 발생하였기에 (주)다운플랜은 고객납입금(회비)을 100% 은행에 적립하고 있으며, 선불식할부거래법을 준용하여 고객납입금의 50%는 정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 (주)다운플랜 회원은 상조 또는 웨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회원님의 서비스 만족을 위하여 본사에서 직접 전국을 통제·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다운플랜은 전국 다수의 장례식장과 웨딩홀을 계약하여 회원님께 시설 사용료를 할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신청 | 1577-1555 www.daonplan.com



(주)다운플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kt본사 2층 (주)다운플랜  
TEL. 1577-1555, 031-727-4803~4 FAX. 031-727-4809